

보험부채 사업비 가정은 왜 물가목표 2%를 보나

실제 물가를 고정 대입하는 규칙이 아니라 한국은행 목표 등을 감안하게 한 최소 평가기준이다

금융위원회의 시행세칙 개정 설명,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행정규칙과 보험업법, 한국은행의 현재 물가안정목표를 대조해 목표 2%와 실제 회사 가정을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9.02	연번	2026_88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2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정을 보험료를 정하는 규제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부채를 평가할 때 쓰는 가정의 최소선으로 본다. 한국은행의 2%는 중기 정책목표이지 관측된 물가가 아니며, 시행세칙 문언도 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요구한다. 회사별 최종 가정과 그 재무영향이 비교 가능하게 공개돼야 기준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보험부채의 사업비 가정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목표는 2%지만 회사의 최종 가정을 2%로 고정하는 규정은 아니며 실제 반영값과 재무영향은 별도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29일 보험부채 계리가정, K-ICS 내부모형과 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적용	2026년 6월말 결산	일부 사항은 12월말부터
사업비 가정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	비용 발생기간 임의 단축 금지
현재 물가목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전년동기대비·중기 목표
신규담보 손해율	참조순보험요율+약 10% 안전할증	5년 이내 경험통계 담보
비실손 갱신형	10년 안에 목표손해율 수렴	실적손해율이 더 낮은 경우
ORSA 유예 가능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외국계 지점	국내 영업 보험회사 원칙 적용
가정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보고	위험관리위원회

계리가정은 앞으로 받을 보험료와 지급할 보험금·사업비 같은 현금흐름을 예측해 현재가치의 보험부채를 계산할 때 쓰는 값입니다. 금융당국은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최소 기준을 두고 산출자료, 보정방법과 의사결정체계를 문서화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의 실제 발생원인을 고려해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2%입니다.

신규 위험담보 중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경우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씁니다. 보수적 손해율은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에 약 10% 안전할증을 반영합니다. 비실손 갱신형은 실적손해율이 목표손해율보다 낮으면 10년 안에 선형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IFRS17과 K-ICS가 2023년 시행되면서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으로 보험부채와 지급여력을 측정합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미래 손해율과 사업비 증가를 낮게 가정하면 현재 부채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는 회사와 그 가정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같아 최소 기준과 내부통제가 필요해졌습니다.

보험업법 제120조는 보험회사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계상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계리가정 기준은 그 아래 감독업무시행세칙과 별표에서 작동합니다.

물가안정목표는 과거 한 달의 실제 물가상승률이나 회사의 비용증가율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중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에 근접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목표입니다. 이를 사업비 가정의 외부 기준선으로 참조하면 회사가 장기 비용증가를 지나치게 낮게 잡는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이라고 적습니다. 회사별 비용 구조, 실제 인건비·전산비와 다른 지표도 최종 가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는 비교 출발점이지 모든 회사와 기간에 그대로 대입되는 단일 산식이 아닙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적용받는 주체는 보험회사이고, 보험계약자는 그 평가 결과로 회사의 부채와 지급여력 수준이 달라지는 간접 영향권에 있습니다. 공개 자료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업권 전체 보험부채가 얼마 늘거나 줄었는지, 적용 대상 계약이 몇 건인지 제시되지 않아 총액 효과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수치 기준선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비 가정은 현재 물가목표 2% 등을 감안하고, 경험통계 5년 이내 신규 담보의 보수적 손해율에는 약 10% 안전할증이 들어가며, 일부 비실손 갱신형의 낮은 실적손해율은 10년 안에 목표 손해율로 수렴합니다. 각 수치는 적용 대상과 역할이 달라 서로 더하거나 한 비율로 만들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이나 갱신안내장에서 회사가 부채 평가에 쓴 물가상승률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은 결산·계리 문서 안에서 정해지고, 가정 변경의 재무영향은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대상입니다. 계약자가 보는 보험료 변동과 회사의 부채 평가 가정이 같은 시점에 같은 쪽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가안정목표	2%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중기 목표
신규담보 경험통계	5년 이내	보수적 손해율 적용 대상
안전할증	약 10%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
수렴 기간	10년 이내	일부 비실손 갱신형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2%가 회사의 최종 사업비 가정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정은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하도록 해 회사별 다른 입력값과 판단이 들어갈 여지를 남겼습니다.

02 · 회사별 가정과 재무 영향은 비교표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물가상승률을 썼고 종전보다 보험부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03 · 부채 평가기준이 보험료를 바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갱신보험료 산출은 약관과 별도 기초율·규정을 따르므로 계리가정 변경만으로 개별 계약의 보험료 변동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04 · 12월말 적용 사항과 ORSA 유예 결과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손해율 기준은 12월말부터 시행되고, 유예 가능 회사의 실제 신청·기간과 적용 결과는 추가 공표가 필요합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가입한 보험회사의 경영공시에서 K-ICS 비율과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주석을 같은 결산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갱신보험료가 바뀌었다면 갱신안내장과 약관의 산출 기준을 확인하고 부채 평가 가정의 변경과 자동으로 같은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보장 관련 설명을 요청한 경우 회사의 답변과 안내문을 보관합니다.

대상회사

- 사업비 가정에 사용한 물가목표와 다른 지표, 가중 방식과 비용 발생기간을 계리 문서에 재현 가능하게 남깁니다.
- 가정 변경의 사유·내용·재무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 보고와 경영공시의 설명에 일관되게 연결합니다.

당국

- 회사별 사업비 물가상승률의 범위와 보험부채 영향액을 비교 가능한 집계로 공개합니다.
- 2% 목표와 실제 물가의 차이가 커질 때 회사가 '등'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점검하고 12월말 적용 결과를 공표합니다.

갈림길

계리가정이 회사 내부 문서에 머무는가 비교 가능한 공시로 나오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회사별 사업비 물가상승률, 가정 변경의 재무영향과 12월말 적용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 회사별 가정과 영향액을 공시 계약자와 시장은 같은 기준일에 2% 목표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B 감독당국 보고에만 유지 감독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K-ICS나 보험부채 변동 중 가정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보험회사의 2026년 결산 경영공시,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과 금융당국의 회사별 적용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2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브리프 K-ICS 경과조치 전후 비율 ↗](#)

[넥서스 브리프 보험사 가계대출 연체율의 분모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6건

01	1차 ·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 발생기간의 자의적 단축을 금지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보도자료, 2026.6.29, II-1 사업비 가정, 확인 2026.9.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2	1차 · 경험통계 5년 이내 신규담보의 약 10% 안전할증과 일부 비실손 갱신형의 10년 수렴 같은 금융위원회 자료, 손해를 관련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표, 확인 2026.9.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3	1차 ·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와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의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같은 금융위원회 자료, 내부통제 및 감독체계 항목, 확인 2026.9.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4	1차 ·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2%인 중기 정책목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목표 및 운영체계, 확인 2026.9.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5	1차 · 보험회사의 결산기별 책임준비금 계상과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20조, 확인 2026.9.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6	1차 ·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ORSA 적용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현행 행정규칙, 확인 2026.9.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회사별 사업비 가정의 물가상승률과 보험부채 영향, 12월말부터 적용되는 손해율 기준과 ORSA 유 예 결과가 공개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감독규범과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보험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특정 보험계약의 가입·전환·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회계·법률· 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